

“우리 집에서 랜선이 사라진다” KT, 어디서나 ‘기가와이’ 첫 선

초고속인터넷 22년, 가입자 900만

“2022년 기가와이 비중 50%로
신규 누적가입자 100만명 목표”

기존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에
이지매시 기술 접목 버디로 연결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22년 만에 가입자 900만명을 달성한 KT가 ‘랜선’을 없앤 ‘기가와이’ 서비스를 출시하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다. 인터넷 이용 패턴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 시장을 세분화 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KT 5G·기가사업본부장 이성환 상무는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전체 인터넷 신규 가입자 중 기가와이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누적 가입자 100만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랜선 없앤 와이파이, 집 안 어디든 끊김없이…“2022년까지 가입자 50%까지 확대할 것”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초기 모뎀 서비스 이후 1997년 ISDN, ADSL, VDSL에 이어 2014년 기가 인터넷, 2018년 10기가 인터넷으로 발전을 이어왔다.

올해 6주년을 맞은 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KT 전체 인터넷 가입자 900만명 가운데 62%를 넘어섰다. KT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프라 중 기가 커버리지는



기가 와이 버드. /KT

올해 기준 99.7%이다. 시장 점유율도 41%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T는 오는 23일 선보이는 인터넷 서비스 ‘기가와이(GiGA Wi, GiGA Wide WiFi)’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집 안 어디서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가와이 3종은 무선속도에 ‘공간’ 개념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가와이 프리미엄에 새로 출시한 기가와이 ‘버디’를 묶어 무선인 두 대의 와이파이로 자동 연결된다. 이지매시 기술을 접목해 위치에 따라 최적의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식이다.

속도는 최대 867메가비피에스(Mbps)다. 버디는 집 안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 와이파이 연결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집 안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평대 집 안에서는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KT측의

설명이다.

‘기가 와이 인터넷 최대 1G’ 월정액은 결합상품 3년 약정 기준 3만52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이다. KT는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1100원 할인된 3만4100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KT는 오는 2022년까지 기가와이 인터넷 신규 가입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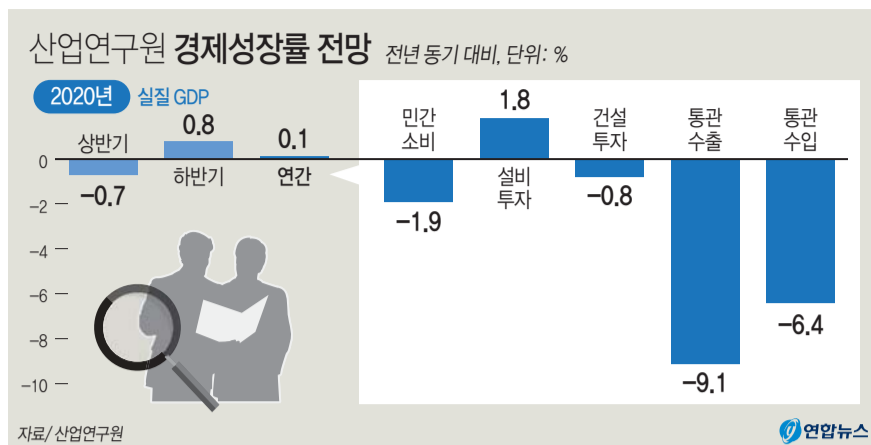
◆초고속인터넷 시장 포화?…“맞춤형 서비스로 도약”

KT가 랜선을 없앤 와이파이를 선보인 이유는 단말의 변화 때문이다. 집에서 고형 PC 단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유선 기반의 데스크톱 보유율은 2010년 81.4%에서 2019년 52.2%로 감소한 반면, 무선 디바이스 보유율은 4.9%에서 94.9%로 19배 이상 늘었다. 태블릿PC 등 접속 디바이스 수는 2017년 2.4대에서 2022년 3.6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 가구와 소상공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도 선보였다. 기가와이 싱글TV는 인터넷과 IPTV 상품을 더해 기존 대비 최대 19% 가격을 낮췄다. 소상공인 서비스 또한 기존 패키지 대비 1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영상 보안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코로나19에 수출·소비 ↓ 올 경제성장률 전망 0.1%

산업연구원,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실질 GDP ‘상저하고’ 흐름 보일 것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해 국내 성장률이 0.1%에 그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7개월 전인 작년 11월 국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었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0.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투자 수요 역시 제한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질 GDP(경제성장률)는 상반기 마이너스(-0.7%)에서 하반기에는 플러스(0.8%)로 돌아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이번이 내놓은 전망치는 정부(0.1%), 한국개발연구원(0.2%)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은행(-0.2%), 국제통화기금(-1.2%), 한국금융연구원(-0.5%), 한국경제연구원(-2.3%) 등보다는 높은 편이다.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 작년보다 9.

1%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10.7%)보다 하반기(-7.5%)에는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완화하겠지만, 지난 4월부터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인 탓에 연간 통틀어서는 작년(-10.4%)과 비슷한 수준(-9.1%)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수출액은 4930억 달러로, 50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액도 작년보다 6.4% 감소한 4711억 달러로 추산했다. 전체 교역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389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21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을 비롯해 철강, 정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기기 및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소비 역시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소비자 심리 역시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용수 기자 hys@



폭염 속 소방대원 훈련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은평구 소방학교에서 신규 임용 소방관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

“檢 결정따라 삼성 경영행보 달라질 것”

>> 1면 ‘JY수사, 창과 방패…’서 계속

아울러 이 부회장 공백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 삼성이 그동안 검찰 수사로 주요 경영진들 공백을 겪으면서 이 부회장만이 유일한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매주 1회 이상 법정에서 출석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국내외 여론도 이 부회장의 ‘사법 리

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은 지난 구속 영장 심사 당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은 의사 결정 체제 붕괴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서는 모두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단순 권고 사항

에 지나지 않아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에 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재판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음이 외부 인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인 만큼,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엔 관련 수사로 경영진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모든 경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의 경영 행보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폴란드 마스크 업체 지원

폴란드 기업 ‘프탁’에 스마트팩토리 생산성 3배… 코로나 극복 힘 보태

삼성전자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마스크 제조업체에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며 글로벌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삼성전자는 최근 폴란드 마스크 제조업체 ‘프탁’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업체 마스크 생산량을 3배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프탁’은 의류전문 기업으로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마스크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해 5월부터 마스크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탁에 설비·제조전문가들을 파견해 설비 셋업을 비롯해 설비 운영, 현장 관리,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다. 제조 설비의 운전 기준값 설정을 최적화하고, 설치된 설비 일부를 조정해 생산 효율을 올렸다. 제조현장의 레이아웃 조정과 물류 개선도 진행했으며, 인력 운영 등 노하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프탁은 하루 마스크 생산

량을 2만3000장에서 6만9000장으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도 마스크 제조 설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삼성전자로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단키트 제조업체 등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E&W, 레스텍, 에버그린, 화진산업 등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해 마스크 생산 향상을 지원했고, 생산량을 51%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진단키트업체인 솔젠트, SD바이오센서, 코젠바이오텍 등에도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 특히 솔젠트는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이 73% 증가했으며, 보호구 제조업체 오토스윙도 고글 생산량을 1달 3만개에서 26만개로 9배 가까이 증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